

에너지절약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全斗煥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등 관련 국무위원들과 140개 에너지다소비업체 대표 및 협회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소비절약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1. 노고치하

그 동안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 에너지 절약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그동안 기술개발이라든지 노후시설 改替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합니다.

2. 에너지절약은 국제수지·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첩경

본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에너지절약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근원이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자원이라고는 무연탄 정도 밖에 생산되지 않아 연간 70억달러 가까운 에너지를 외국에서 사들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10%만 절약한다고 해도 연간 약 7억 달러 정도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기업의 원가부담도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드니까 국민소득이 그만큼 증가되는 셈입니다.

같은 경제성장을 하는데 日本은 49, 우리는 100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100이라는 에너지를 들어서 GNP를 1% 성장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도 日本과 같이 49나 40까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비단 우리 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

라, 국가경제를 건실히 하는 하나의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하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기업과 가정에서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개발하고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설의 투자를 할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공업도입에 최우선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절약은 정부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원가가 올라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며,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기업들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속도가 아직도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재원조달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는 금년도 투자해서 금년중으로 투자비를 다 뽑을 수 있으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것이 몇년이 더 걸리면 상당히 주저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탕식의 투자는 모두 쉽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차곡차곡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투자하는데 조금 인색한 것 같이 보입니다.

금년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25억원 내지 30억원의 효과를 본다면 그 투자는 큰 성공인 것입니다. 투자비는 3년 내지 4년내에 회수되면 되지 더 이상 장사 잘되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추가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각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투자해서 2년동안에 회수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3년이나 5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4. 에너지를 절약하면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만 그만큼 개인의 소득으로 돌아가

우리 소비자들도 가정에 전등하나부터 시작해서 수도물도 아껴쓰고, 각종 전열기, 자동차의 사용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이 습성화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자기 집안의 지출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가정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반대로 개인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마치 정부만 큰 덕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에너지를 10%가 아니라도 5억달러 정도만 절약하면 국제수지면에 있어서 그만큼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만, 그돈은 전부 개인가정에

소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은 이득이 없고 나라만 이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5. 건축물은 처음 지을때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소비를 부문별로 보면 거의 40%가 주택, 사무실등 건물부문에서 쓰고 있는 만큼 주택과 건물부문에서의 절약이 산업부문에서의 절약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100년전 200년전에 지어는 건물의 모든 골격은 그대로 있고 내부를 수리하여 앞으로도 수백년 쓸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지금 짓는 건물은 더 좋게 지을 것입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핵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건물을 짓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건물이 최소한도 100년은 가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하며 특히 에너지절약형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나 건축자재 선정부터 에너지절약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에너지절약은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산유국들의 횡포로 인해서 오일쇼크가 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1, 2차 오일쇼크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경제적으로 자칫하면 파산상태에까지 들어갈뻔한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8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에 국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금리만 더 물어준 것이 100억달러가 넘었습니다. 원유값도 5년동안 180억달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두개 합하면 한푼 써보지도 못하고 과거 외채에서 금리인상과 油價상승으로 인해서 280억달러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매장량 자체도 제한되어 있고, 다른 묘안이 나오지 않는한 이 에너지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OPEC에서 자기네끼리 약간 이론이 있고 해서 原油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석유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기업, 정부 모두가 일치되어 에너지절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노력만 하면 연간 10%가 아니라 연 20% 정도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日本의 경우, 같은 GNP의 성장에 에너지투입이 49이고 우리는 100을 투입해야 하니까 日本보다 배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日本은 제 1차 오일쇼크 이후에 모든 기업이 에너지절약형으로 주력을 해서 그렇게 됐고, 우리의 경우는 에너지 한방울도 안나면서도 가장 방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산상태에 직면했는데도 무슨 수가 있겠지 하고 노력을 안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도 안타까워서 이와 같은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에너지절약을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에너지절약을 하라고 해서야 되겠

습니까? 日本사람들은 오일쇼크 이후부터 앞을 내다보고 그 분야에 정부, 기업, 연구소, 국민들이 전부 일치가 되어서 노력해온 결과 지금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국제적으로 아주 강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에너지절약에 관한 검사나 인허가시 형식에 그치지 말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에너지절약 방법은 여러가지 있는데,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검열이나 승인을 할 때 형식적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건축물을 승인해 줄 때 에너지절약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건설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관계기관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이것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자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등 모든 정부기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분야에서 할 것은 철저히 챙겨야 될 것입니다. 건물, 선박, 자동차 등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건설부에서 보고하는 가운데 전국 상수도가 71,000km가 된다고 하는데 71,000km 가운데 9,000km 정도가 노후화 되어서 물이 샌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비싸게 먹히겠습니까? 연간 550km 정도를 개수해 '나가려는 모양인데' 연간 550km하면 십몇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너무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빨리 개수할수록 에너지절약뿐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87년도 예산부터는 550km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당기도록 관계부처간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 이번 회의를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로 활용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절약이 국가발전과 국가경제성장에 얼마만큼 중요한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재인식 하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전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시키는 홍보교육의 효과가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크다